

완주군 상수도개발 부실 논란

되메우기 과정에서 모래 5cm 정도만 사용 20cm 가량 돌 섞인 토사로 되채움 의혹도

완주군이 추진 중인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7월 26일자 9면〉 완주군에서 발주해 전주 D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비봉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문제는 관로 부설시 20~30cm 모래를 채운 후 뒤 채움재로 양질에 토사를 사용토록 하고, 땅 꺼짐 방지를 위해 되메우기 과정에서 30cm 마다 다짐을 하도록 시방서에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이곳 공사현장은 관로 파손을 막기 위해 완충 작용하는 모래는 5cm 정도를 바닥에 뿌리듯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뒤 채움시 양질에 토사를 사용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파 놓은 불량 (돌 20cm 섞인)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땅 다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본지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다량에 돌들 (사진)과 함께 되메우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공사' 논란을 질게 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요즘 여기저기서 관로가 파괴되어 주변이 들바다로 변한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면서 "이러한 일련에 일들은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사를 시공 하지 않아 '부실공사'로 이어져 일어난 일이다"며 "이 같은 공사가 계속 진행 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상수도 관계자는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확인해서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경우 제시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장수 계북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공익장 한규진 · 애향장 한규범 · 효열장 허재은

장수군 계북면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덕남)는 제67회 계북면민의 장 수상자로 한규진(공익장), 한규범(애향장), 허재은(효열장) 씨를 각각 선정했다.



공익장 한규진



애향장 한규범



효열장 허재은

공익장 한규진(61세, 계북면 느릿웃담길)씨는 1975년부터 2009년까지 계북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장수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역임하며 주민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계북면 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주민들의 체육증진과 체육행사 등을 통해 주민간의 화합에 혼신을 기울였다.

또한 계북면 이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2014년 백암마을 화약공장 유치반대와 2015년 과곡마을 OK 레미콘 옥상 골재채취 허가 관련 반대 추진위원장을 맡아 지역호미시설 유치에 적극 반대하여 청정 계북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한편 계북면민의 장 시상식은 8월 15일 제67회 계북면민의 날에 있을 예정이다.

문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의 교육을 위해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했다.

또한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위원, 교육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노력했으며 서예교실 '우공회' 강사로 활동하며 서예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효열장 허재은(65세, 계북면 연동동 담길)씨는 박갑수씨와 결혼해 2남을 양육했으며 94세의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5~6년간 자기에서 직접 수발하며 자극정성으로 봉양함으로써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계북면민의 장 시상식은 8월 15일 제67회 계북면민의 날에 있을 예정이다.

문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의 교육을 위해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사방댐 설치 주민 만족도 높아

생명 · 재산피해 예방 기대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금년 신설된 사방댐 주변 마을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북창마을 외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했으며, 조사항목은 사방댐에 대한 이해, 설치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기타 불편사항 등 7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사방댐설치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만족도는 최상이며 아울러, "사방댐 설치로 산사태 등 산림피해로부터 마을의 안전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 68%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저사·저수 기능 확보로 주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초 무주·진안·장수군 지역에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사방댐 주변마을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설문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속적인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부문화 확산 앞서가는 완주

1111 사회소통기금에 2800여만원 일시 기부

완주군의 1111 사회소통기금 희망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군은 지난 4월 출범한 '1111 사회소통기금'이 현재까지 7개 기업 및 단체로부터 총 2천 800여만원의 일시 기부와 512명의 매월 정기 후원자로 기부문화 확산에 앞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1111 사회소통기금은 민선 6기 박성일 군수 공약사업으로 다양한 사회적 분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금융제도로 100원, 1,000원, 10,000원 또는 소득의 1%를 기부하는 사회통합 군민 모금운동이다.

지난 26일에는 (주)새(대표이사 백정열)이 완주군과 함께 1111사회소통기금에 500만원을 쾌히 쾌척하며, 완주군의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주)새는 '새로운 시각과 기술력으로

미래는 이끄는 기업'의 회사 이념을 바탕으로 CCTV 및 통합관제, 지능형 영상분석 등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체로 2012년 12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주)새는 백정열 대표는 2015년에 완주군 화산면으로 귀촌한 이후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신의 1%가 희망이 됩니다"라는 완주군의 외침에 마음이 움직여 사회소통기금 조성에 일조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성일 군수는 "군민 운동에 동참해 준 (주)새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과 단체, 기업이 완주군의 미래를 위한 군민 운동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래는 이끄는 기업'의 회사 이념을 바탕으로 CCTV 및 통합관제, 지능형 영상분석 등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체로 2012년 12월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산촌 6차산업 '우수'

완주군이 2016년도 산촌 6차 산업 우수단체로 선정돼 국비 4천만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우수단체는 완주 동상면에서 생산되는 감·곶감·감식초 등을 공동생산하여 인터넷 등 소비자 직거래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완주군 동상면 영농조합법인 동상면 사람들 대표 유승정 조합원 외 4명이다.

우수단체로 선정된 '동상면 사람들'은 감을 이용한 감일차·감식초음료·개복숭아를 이용한 식초, 음료 등을 유기농으로 개발 가공하여 소비자 협동조합에 전량 납품하는 등 2016년 도 산촌 6차 산업 우수단체로 선정돼 국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투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에서는 앞으로 산

촌 6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도 공모사업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산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생산단체나 전문인업인인 누구나 공모사업에 신청 할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주거환경개선으로 잘사는 산촌마을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과
063-430-2951

진안홍삼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진안홍삼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진안홍삼축제 추진상황 2차 보고회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회는 단장 이근삼 부군수를 비롯한 16개부서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프로그램 및 전 범위적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지난 7월 1일 개최된 1차 보고회 당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2차 보고회는 수정사항과 그간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축제 대행사 선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근삼 단장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마이산북부 마이몬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실무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정기적인 보고회로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소년 진로체험 '잡월드로 직업여행' 호응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3일 관내 중·고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소재)에서 청소년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잡(Job)월드로 직업여행'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잡(Job)월드로 직업여행'은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한국 잡월드를 방문해 자신의 관심 진로분야 직무를 실제로 경험해봄으로써 현장감 있게 관심 분야를 탐색하도록 돕는 진로체험활동이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 학생들은 실제 직업현장을 체험한 직업체험실에서 진로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경험했다.

특히 총 43개의 체험실 중 자신의 관심 분야 체험실을 선택해 각자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직업활동을 경험하고 미래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중·고교생 대상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진안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중·고교생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총 4회로 7월 26일부터 중·고생이라면 누구나 편한 시간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7월 28일, 8월 4일, 8월 11일 3회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생명사랑 지킴이가 되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화(063-430-8579)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부남파출소 피서철 절도 예방 홍보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부남파출소 양석호 소장은 지난 25일 면사무소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피서철 절도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을 홍보하며 주민 애로사항 등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하반기 정기인사 된 부남파출소장과 지자제, 이장들과의 상견례 자리도 겸하면서 양 소장은 "관내 안심치안 및 정성치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장단 모임에 경찰행정이 추구하는 방향을 주민에게 전파 및 홍보하며 주민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이니만큼 앞으로 반드시 참여하여 부남면 관내 안심치안을 실현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